



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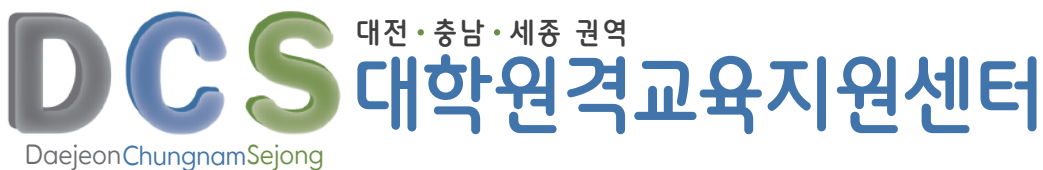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는 권역 내 대학·전문대학을 연계하고 지원하며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원격교육 생태계를 구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DCS Together>에서는 원격수업 혁신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최신 교수법 동향, 수업노하우, 정책연구 결과,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권역 내 공동활용 가능한 강의녹화 스튜디오를 충남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활용이 가능한 원격강의 콘텐츠를 개발 및 공유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일 니더작센주, 교육 디지털화를 위한 대학 공동 프로젝트 추진



독일 니더작센주, 교육 디지털화를 위한 대학 공동 프로젝트 추진¹⁾

독일 니더작센주 학술문화부가 교육 디지털화를 위해 대학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공개 교육자료(OER)의 개발 및 보급과 대학 간 공개교육자료 네트워크의 심화이다. 건축학, 수의학, 도시건축공학, 교육경영학 등 다양한 전공을 아우르는 일곱 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선정해 18개월 동안 총 125만 유로를 지원한다.

I. 독일 니더작센주의 공개교육자료(OER) 개발 프로젝트

- 니더작센주 학술문화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교육 디지털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함. 특히 온라인 수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개교육자료(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의 개발을 위해 니더작센주 내에 위치한 대학 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함. 2020년 9월부터 18개월 동안 총 125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임
- 공개교육자료란 영상, 팟캐스트, 수업 자료 등 형식과 종류에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유와 수정이 자유로운 교육 자료를 말함. 양질의 공개교육자료는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최근 교육계 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니더작센주는 원활한 공개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를 위해 공개교육자료 포털(<https://www.oernds.de/oer/>)을 운영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목표는 공개교육자료 분야에서 대학 간 네트워크를 심화하여 개발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 시켜 나가는 것임. 이를 위해 니더작센주에 위치한 대학들은 학과별로 두 대학씩 짝을 지어 프로젝트에 참가했음. 다양한 전공을 망라하는 총 18개 팀 중 일곱 팀이 최종적으로 선정됨

II. 선정된 7개의 프로젝트²⁾

- 디지털화 시대의 교육경영(올덴부르크 종합대학/오스나브뤼크 응용과학전문대학): 이 프로젝트의 대상은 교육 및 학술기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임. 공개교육자료의 주요 내용은 수업 품질 관리, 온라인 수업 비중 강화, 교육행정 디지털화 등 미래에 교육 기관들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과제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임
- 3D 프린터를 통한 건축자재 제작(하노버 종합대학/브라운슈바이크 공과전문대학): 적층식 3D 프린터 기술은 재료나 설계의 제약에서 벗어나 원하는 디자인대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3D 프린터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양질의 디지털 교수자료는 필수적 요소임.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는 건축학과 대학 학부생들부터 석사과정 학생까지 다양한 수준을 아우르는 공개교육자료를 개발할 계획임

1) <https://www.mwk.niedersachsen.de/startseite/aktuelles/presseinformationen/land-fordert-projekte-zur-digitalen-lehre-mit-1-25-millionen-euro-192182.html> (니더작센주 학술문화부 홈페이지, 2020.09.04) <Keyword> 공개교육자료, 교육 디지털화, 대학 공동 프로젝트

2) <https://www.presse.uni-oldenburg.de/mit/2020/149.html>, <https://idw-online.de/de/news753901>,
<https://www.tiho-hannover.de/aktuelles-presse/aktuelle-meldungen/aktuelle-meldungen/article/gebuendeltes-wissen-zu-tiervers/>,
<https://www.hs-osnabrueck.de/nachrichten/2020/09/180000-fuer-digitale-lehre-hochschule-osnabrueck/>

- 동물실험의 대안(하노버 수의과전문대학/하노버 의과전문대학): 동물실험이 필요한 분야의 모든 연구자들은 동물실험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대안이 있다면 최대한 연구에서 동물실험을 배제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음. 이 프로젝트는 동물보호와 동물실험 대안에 관한 공개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의학과 수의학 전공 학생들에게 철학적·윤리적 고민을 할 기회를 주고자 함. 학생들은 공개교육자료 영상을 본 후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하면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주제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하게 될 것임
- 가상 도시관람(하노버 종합대학/브라운슈바이크 공과전문대학):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구글 지도의 정보를 활용하여 공개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후에 국내외 도시건축 분야 대학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 도시건축공학과와 경우 국내외 유명 건축물을 직접 관람하는 것이 학습에 큰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여행을 하기에는 시간이나 비용 제약이 큼.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될 공개교육자료는 이런 직접 경험의 부재를 보완해줄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이질학습을 위한 행동전략(울덴부르크 종합대학/페히타 종합대학): 사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프로젝트로, 통합교육³⁾에 관한 교수법 자료 개발을 목표로 함. 실제 교육 현장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있는 반면, 일반 사범대학 학생들은 교육 커리큘럼 내에서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연구팀은특수교육, 통합교육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교사가 학습장애 및 행동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높여줄방법이 무엇인지 소개할 예정임
- 문화간 교류 및 다양성 역량 증진(오스나브뤼크 종합대학/오스나브뤼크 응용과학전문대학)⁴⁾: 세계화 시장에서문화 다양성 역량은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지녀야 할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는 5~20분 분량의 온라인 연습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상호작용 시뮬레이션을 경험해 보고 관점의 변화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경영 과정의 디지털화(오스나브뤼크 종합대학/괴팅겐 종합대학):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음

3)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같은 학급에 수용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협조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교육 방법

4) 독일 내에는 학문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학과 실습 위주의 단과전문대학이 별도의 교육 기관으로 존재함